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고 싶다면 에서를 잘 관찰해야 한다.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긴 에서는 오로지 자기 힘만 의지해서 살아갔다. 에서를 부러워할지 탄식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몫이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 창 27:23

아내 리브가의 대담한 계획, 둘째 아들 야곱의 거짓말에 속아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다.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장자의 명분이 이제는 정말로 야곱의 소유가 되었다. 에서는 이삭이 죽기를 기다려 야곱을 죽이려 했지만 이 계획 역시 어머니 리브가에게 알려졌고 리브가는 이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아들 야곱을 친절로 피신 시킬 계획을 세운다. 그렇다고 울고만 있을 에서는 아니었다. 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며 부모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썼다. 그 노력이 이스마엘의 딸들과의 결혼이긴 했지만.

에서는 물려 받은 것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것'을 이루었다.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길 만큼 충만했던 자신감으로,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물려 받은 유산 없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도망친 야곱이 귀향할 때 에서는 사백 명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갔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 창 32:6

무장한 부하 사백 명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할 때 거느린 삼백십팔 명 보다 많은 숫자다. 에서는 유목민이다. 유목 사회에서 무장한 부하 사백 명이 무슨 국군장병들처럼 총각들도 아니고 각자 부모, 각자 처자식과 함께 움직였을 것인데 족장으로서 에서가 이런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숫자다. 에서가 모은 '자기 것'이 창세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다. 그 중 에서 6절은 에서가 야곱과 헤어지는 때 에서가 이룬 것을 기록한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 창 36:6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 자기의 가축.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고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것이었다.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남은 축복을 요구했을 때, 이삭이 축복한 내용을 살펴보면 에서가 이룬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임이 납득이 된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밟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 창 27:39-40

에서는 자기 손에 쥐어진 칼 한 자루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일궈내야 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칼을 밟고. 자기의 것들을 모았다.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 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 창 36:19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 창 36:31

에서는 성공했다. 자손들도 족장이 되었고 왕조도 이루었다. 분명에서는 성공했다. 그러나에서의 성공은 하나님을 뺀 나머지 영역에서의 성공이었다. 다음 편에서는에서 잃어버린 것을 생각해보자.